(742)

조 선

주체107
(2018) 5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자력자강의 정신을 심어주시여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오는 나날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더욱 심장깊이 체득한 진리이다.

조선혁명의 개척기부터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내세우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 위력한 표대가 있기에 천만군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울수 있은것이다.

자력자강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심어주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8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자체로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이곳의 로동계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이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그 무궁무진한 위력으로

차 례

표지: 중앙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진 리철진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뜨락또르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1월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운행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2월

조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그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였으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때로는 찬눈비속에서 때로는 이른 새벽과 자정이 깊은 밤에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며칠후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말씀하실 때 수행일군들과 공장일군들의 마음은 얼마나 격정에 넘쳐있었던가.

그로부터 얼마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신데 이어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최근 해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하였으며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건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진행하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뜨락또르, 화물자동차, 무궤도전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8월

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한계를 모르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11월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수백대의 새형의 80hp뜨락또르들이 즐비하게 서있는것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는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이라고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드넓은 주차장을 꽉 메우고 서있는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만들어낸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볼수록 힘이 나고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지난 2월의 어느 깊은 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운행길에도 함께 오르시여 무엇보다도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여서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긍지스럽고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의 힘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결과물들을 마주할 때가 제일 기쁘고 더없이 만족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진정 이 나라 천만군민을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키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령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창조와 변혁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사회주의선경거리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즐겁게 학교로 오가는 아이들의 모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은 단순히 존엄을 지켜낸 용감하고 굳센 나라로만이 아니라 자주로 번영의 길을 드넓게 닦고 자력자강으로 창조하고 비약하며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앞당겨 나가고있다.

글 최광호

원료, 설비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과학기술을 앞세워

명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대동강맥주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대동강맥주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으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가지수를 늘여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힘을 넣어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들과의 련계밑에 선진과학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는 종업원들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으로 하여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이 개건되고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있을뿐아니라 새로운 맥주도 개발되고있다.

설비들을 증설하지 않고도 싸이로의 능력을 확장한 계통개작과 병맥주상자들을 자동흐름식으로 옮겨 차곡차곡 올려쌓는 설비제작을 비롯하여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많은 설비들은 맥주생산의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공장에서는 맥주생산에서 핵심기술로 되고있는 고농도맥주발효성당조성과 고농도맥주효모분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맥주의 향기생성, 발효도, 거품도, 색도, 쓴맛도, 산도의 기술적지표들을 정확히 보장하고있다.

최근에는 밀을 주원료로 하는 새로운 맥주도 개발하였는데 맛이 독특하여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질좋은 맥주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려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대동강맥주에 대한 인기는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박병훈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하고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맥주의 질을 높이고있다.

수지배들을 건조한다

수지선박건조재료, 건조공법에 대한 기술일군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각종 형태의 수지배들을 건조하고있다.

강원도 통천군 장진리의 조선동해바다기슭에 통천지성수지선박공장이 새로 일떠서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난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동의 기본생산건물과 부두, 보조건물건설을 립체적으로 벌려 반년남짓한 기간에 완공하고 다양한 용도와 형태의 선박건조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

그리고 오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수지선박건조기술을 발전시킬 드높은 열의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 선박연구실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수지선박건조재료들의 종류와 그 물리력학적특성, 건조공법의 추세에 대한 선행문헌연구를 활발히 벌려 나라의 실정에 맞는 수지선박구조설계를 마침내 완성하고 현실에 받아들였다.

또한 수지배건조에서 최소저항선형과 규칙 및 비규칙파도외력평가방법, 복원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와 수지선박건조경험을 쌓고 그 요구를 철저히 지켜 품질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항해속도가 빠르고 선체수명이 길며 연유를 절약하면서 수리 및 운영비용을 최대로 낮추는 기술경제적효과성이 매우 큰 수지고기배, 유람선, 뽀트, 려객선 등 각종 형태의 수지배들을 마음대로 건조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에 공장에서 건조한 여러척의 수지고기배들은 나라의 수산부문에서 그 우월성이 발휘되고있으며 어로공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수지배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맞게 통천지성수지선박공장의 경영활동은 보다 활성화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생산활성화의 동음높이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70여년의 연혁을 새겨오는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창립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수십년간 공장에서는 갖가지 천생산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왔다.

해마다 수천만m의 천을 생산하였을뿐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들을 개건하고 최근년간에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백만m의 생산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샤쯔천직장을 새로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이룩된 혁신적인 성과들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이 낳은것이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올해의 진군길에서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다기대운동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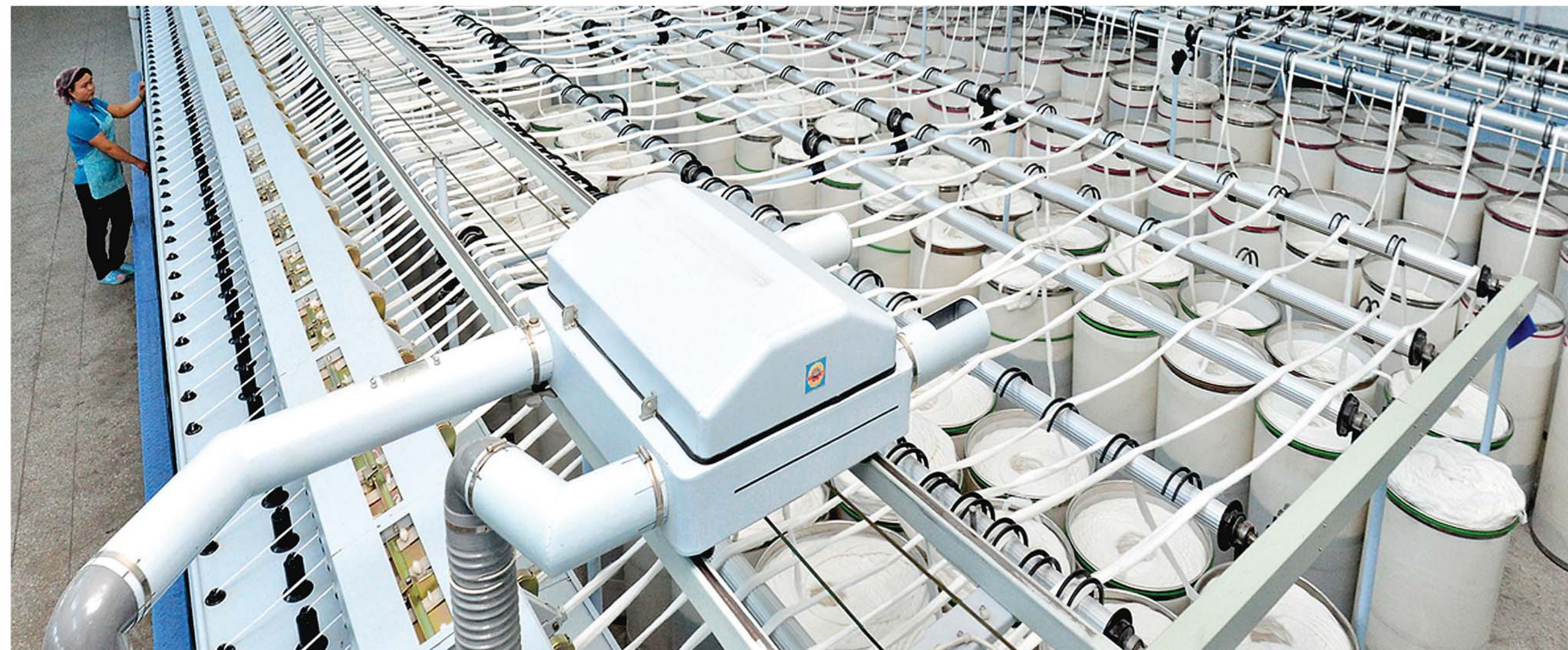
샤쯔천직장에서는 정방기와 직기들을 비롯한 모든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주인답게 함으로써 기대들마다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정방공, 직포공들속에서는 여러 기대들을 맡아보는 혁신자들이 많이 나와 월마다 천생산계획이 넘쳐 수행되고있다.

직포직장들과 정방직장들, 연사, 준비, 염색 등 공장의 모든 직장들에서도 혁신이 일어남으로써 공장적으로 년간 계획완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최근에만도 나라에 많은 리익을 준 레이자빛에 의한 채본제작기를 창안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생산정상화에 의의있는 수십건의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쉬임없이 울려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인민생활향상의 동음으로 이어지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김정

흥성거리는 수족관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중앙동물원.

호랑이가 방불하게 형상된 입구를 지나 연 100여정보의 부지에 펼쳐진 이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거점에 들어서면 다리들이 가로세로 뻗어간 못가너머로 물고기벽화로 장식된 수족관이 제일 먼저 눈에 띄운다.

연건축면적이 5 300여m^2에 달하는 수족관에는 물량이 900m^3인 수중동굴과 300m^3인 상어수조를 비롯한 대형수조들을 포함하여 모두 32개의 수조가 있다.

그리고 그속에서 연 242종의 5 700여마리나 되는 물고기류와 거부기류, 바다무척추동물류들이 서식하고있다.

바다물고기만도 98종에 1 900여마리가 있는 수족관의 총물량은 2 000m^3(그중 바다물량이 1 500m^3)에 달한다.

직관성과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곳에 들어서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즐거움과 랑만은 2년전 중앙동물원이 새롭게 개건되여 문을 열었을 때나 오늘에나 변함이 없는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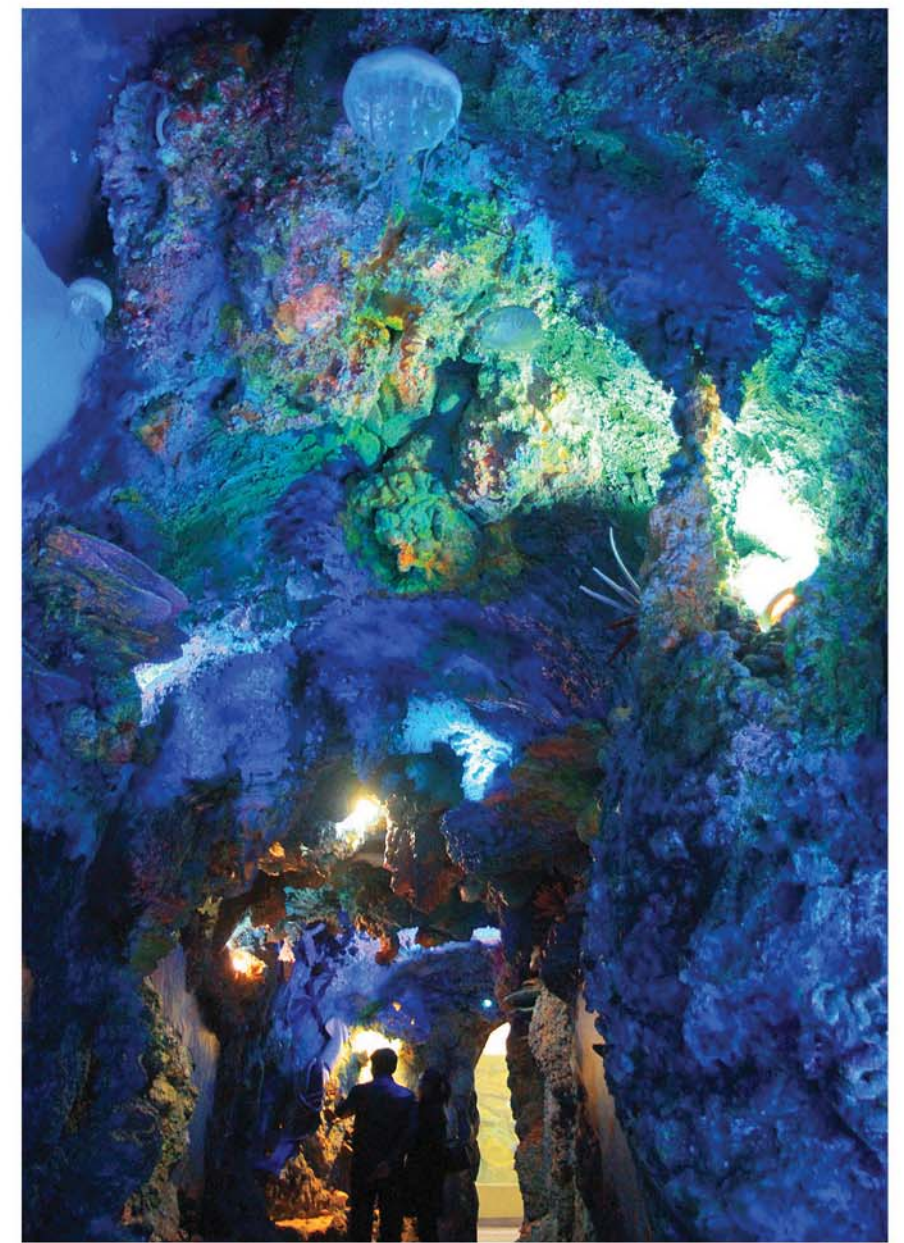
내부의 벽과 바닥이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있어 마치 물속세계에 들어서는것만 같은 기분에 싸이는 참관자들은 처음에 나지는 민물구역에서 철갑상어와 초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온대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아마조나스병어, 전기뱀장어, 피라니아 등 열대에서 사는 민물고기들의 모습을 세세히 관찰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름 그대로 산수의 풍경을 옮겨놓은듯싶은 자연풍치구역의 아름다움에 휩싸였다가 4억만년전의 바다밑을 형상한 6m길이의 동굴을 통과하면 수족관참관의 제일이라고 할수 있는 20m길이의 수중동굴에 들어선다.

탄성을 지르며 몇번이나 반복하여 오가는 사람들, 물고기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언제나 떠들썩한 이곳에서 받은 느낌은 그대로 바다가를 형상하고 물과 접촉할수 있어 접촉수조라고 하는 곳을 지나 대모거부기와 푸른바다거부기를 비롯한 거부기들이 자기 모습을 유유히 과시하는 구역에 이를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곳곳에 물고기에 대한 상식판들과 국내의 수산자원분포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과 관련한 상식판들도 있어 이곳은 문화휴식장소인 동시에 특색있는 교육거점이기도 하다.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과 떠나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로 항상 흥성이고있는 중앙동물원의 수족관이다.

사진 홍광남 글 최광호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김정일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박사인 녕변견직공장 김금실

20여년전인 주체84(1995)년 6월 어느날 녕변견직공장에는 여러날째 밤깊도록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한 녀성이 있었다.

소음이 요란한 직기들의 성능이며 생산된 제품들 그리고 생산건물과 로동자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료해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그는 며칠전에 공장적으로 중요한 생산직장사업을 맡은 김금실직장장이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0살이였다.

많은 녀성들이 40대에 들어서면 사업에 대한 전개보다 가정사에 파묻히지만 그는 네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집안일보다 공장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사업에 더 극성이였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비단을 더 많이 짜내려는 마음만을 안고 직장장사업을 시작한 그는 생산에서의 혁신만이 아니라 생산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나갔다.

그는 새로 건설할 생산건물설계도 하고 비단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생산방법과 공정확립을 위한 탐구의 길에도 나섰다.

낮에는 건설장에서 밤에는 기대앞에서 그가 이렇게 보낸 날과 달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한해 두해 흐르는 속에 직장의 면모는 해마다 달라졌으며 비단의 질도 개선되고 생산능력도 높아졌다.

수천㎡에 달하는 생산건물이 번듯하게 일떠섰고 현대적인 설비들로 생산공정들이 확립되였을 뿐만아니라 갱질비단생산방법을 비롯하여 그가 발명한 30여건의 새로운 비단생산방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여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가지수는 148종으로 늘어나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직장으로 되였다.

그는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을 생산보다 더 중요하게 내세우고 합숙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온실과 버섯재배장, 축사를 비롯한 후방시설들도 갖추어놓고 종업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생산에서는 창조와 혁신의 기수가 되고 생활에서는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 헌신의 자욱을 새겨온 지난 20여년간 그는 《우리 직장장》으로 종업원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그는 **김정일**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공훈기술자의 영예와 박사학위를 지니였을뿐아니라 제12기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오늘 63살의 로년기에도 공장부기사장겸 직장장으로서 나라의 비단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창조와 혁신의 길을 걷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태현

로동자들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

비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유치원도 자주 찾는다.

자연에네르기개발에 힘을 넣어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연구소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한 각이한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을 연구제작완성하여 금산포수산사업소,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에 설치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농업부문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차식물뽐프도 연구완성하였다.

이 수차식물뽐프는 전기와 연유를 전혀 쓰지 않고 흐르는 물을 리용하여 요구되는 곳에 물을 퍼올리는 특색있는 무동력양수설비인것으로 하여 경제적실리가 크고 환경보호에도 유리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이들은 물을 분해하여 산소수소혼합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효률높은 산수소가스발생기도 연구제작하였다.

연구소에서는 박편절단으로부터 밀봉, 조립, 검사공정으로 이루어진 태양빛전지판생산기지도 훌륭히 꾸려놓고 각이한 크기의 태양빛전지판을 만들어내고있다.

이밖에도 정전기물처리기, 태양열물가열기, 250kW풍력발전기, 수중뽐프, 자화물처리기를 연구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연구소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다.

사진 안철원 글 박훈

과학기술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경제적실효성이 높은 자연에네르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전심하고있는 연구사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에서는 교육환경과 조건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면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 학생들을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키우고있다.

중구역 서창동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제4소학교는 7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으면서 전국에 널리 알려진 교육단위의 하나이다.

이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 교수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교육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을 받들어 온 나라에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열풍이 세차게 이는 속에 학교에서는 소학교부문의 교육사업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고있다.

모든 건물들의 내외부를 새 세기 교육단위답게 훌륭히 변모시키고 교실들마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놓았으며 책상들도 모두 새롭게 개조하였다.

그리고 운동장에는 2 700여㎡의 인공잔디를 깔고 수십여점의 체육기재들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수영장과 탁구장도 개건하였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1 000여건의 교수용다매체편집물과 400여건의 과학상식자료들을 작성하여 교수사업에 널리 리용하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형태의 수업과 과외교양활동 그리고 교무행정사업과 관리운영사업에 이르기까지 100%, 그것도 높은 수준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는 10대정보화모범단위칭호를 쟁취하였다.

하기에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최우등생의 자랑을 계속 빛내여가고있으며 수영, 탁구소조를 비롯한 과외체육소조들도 전국적인 경기대회들에서 학교의 이름을 떨쳐가고있다.

올해에만도 5학년의 리예양, 김성복, 리효연, 김영원학생들을 비롯하여 9명이나 《우리 교실》문학상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평양제4소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양제1중학교와 금성학원을 비롯한 높은 급의 학교들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사진 김설희 글 최호

대동강 푸른 물이 감돌아 흐르는 평양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서고있다.
창전거리며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그리고 과학기술전당과 평양교원대학, 문수물놀이장 등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
건설의 새로운 대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모되여가는 평양의 새 모습과 함께 인민의 행복이 더욱 커가고있다.

사진 김주혁

나날이 변모되는 평양

조선민족의 정통무도 - 태권도

조선민족무술의 시조 단군

4세기 중엽에 만든 고국원왕릉 돌벽에 그려진 수박

조선의 전통무술동작들을 종합체계화한 옛 무술도서 《무예도보통지》

태권도성지관에 전시된 자료들의 일부

태권도는 력사적으로 슬기와 용맹을 떨쳐온 조선민족의 억센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전통적인 고유한 운동이다.

태권도라는 말에는 높은 발기술과 손기술, 강한 정신교육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오랜 옛날부터 무술을 즐겨온 조선인민은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부터 맨손으로 상대방을 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손치기놀이인 수박을 중요한 무술훈련종목의 하나로 장려하였으며 고려(918년-1392년)와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에 이르러 발까지 쓰는 택견과 날파람으로 발전하였다.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는 1955년 심혈을 기울여 연구발전시킨 민족무술을 《태권도》라고 이름짓고 이를 세계적범위에로 보급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국제태권도련맹을 창설하여 태권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선에서는 태권도의 뿌리로 되는 택견과 날파람의 발상지인 평양에 태권도의 발전력사를 보여주고 널리 보급선전하기 위한 태권도성지관과 그 발전을 위한 종합체육기지인 태권도전당을 일떠세웠다.

평양의 청춘거리에 있는 태권도성지관은 주체101(2012)년 4월에 건설되였는데 여기에는 태권도의 발전력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으며 지식보급실, 훈련관, 국제회의실 등으로 꾸려져있다.

주체81(1992)년에 건설되여 지난해에 개건된 태권도전당에서는 태권도의 연구와 보급, 훈련 그리고 국제국내경기들도 진행하고있다.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이 있으며 각 도(직할시)들에는 태권도선수단과 태권도교원들을 양성하는 태권도학원이 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소조들이 학교들마다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소학교학생으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태권도가 대중화, 생활화되고있다.

공원과 기관, 기업소, 학교 등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태권도를 하고있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오늘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는 조선에서뿐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 널리 보급되고있다.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태권도인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주체63(1974)년부터 진행되고있는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날을 따라 성황을 이루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강수정

국제태권도련맹 초대총재 최홍희

국제태권도련맹 발기인대회

조선의 태권도선수들은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사회적으로 태권도가 대중화되고있다.

여러 나라 태권도애호가들에 대한 수련도 진행되고있다.

제26차 국제태권도련맹 총회 주체106(2017)년

전국의 병원들에서 은을 내는 먼거리의료봉사

얼마전 황해남도 재령군 동신흥리인민병원으로는 위험한 상태의 임신부가 들어왔다.

이전같으면 환자를 도인민병원이나 중앙병원으로 후송해야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평양산원과 환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두 생명을 살려내였다.

자강도 화평군인민병원에서도 먼거리의료봉사의 덕으로 김만유병원의 유능한 의료집단의 방조속에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취장낭종으로 심한 고통을 받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김만유병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산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과 각 도, 시, 군인민병원들 그리고 일부 리인민병원들에서까지 먼거리의료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환자들에 대한 진단에서 애매할 때 중앙병원들에 먼거리의료봉사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진단을 내려 제때에 치료하고있으며 만성질병환자들이나 수술해야 할 환자들도 중앙병원들에까지 먼거리를 오가지 않고도 협의를 진행하여 회복시키고있다.

또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지방병원들에 대한 기술강의가 정상화되고있어 의사들의 기술이 높아져 파상풍환자들에 대한 사망률은 없어지고 당뇨병환자를 비롯한 질병환자들의 치료에서도 개선을 가져오고있다.

량강도 갑산군에서 살고있는 3도화상환자 리명철은 《평양과 수천리 떨어져있지만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해 이렇게 중앙병원의 유능한 의사선생님들과 마주앉아 치료받으니 병치료에 대한 신심이 생깁니다.》라고 말하였고 남포시 대안구역에 살고있는 박경희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실현되여 평양산원에서 진행하는 전국의 녀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질병들에 대한 치료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있으니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누구나 무상으로 받고있는 먼거리의료봉사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과 각 도, 시, 군인민병원들사이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되여 환자치료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바둑교육에 힘을 넣는다

봄철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에서 3등 그리고 가을철의 같은 경기에서는 2등, 전국어린이바둑경기에 평양시선수로 참가한 조령정어린이가 혼성복식에서 3등.

이것은 대동강반의 미래과학자거리에 자리잡고있는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의 나어린 바둑애호가들이 지난해에 세운 기록이다.

주체104(2015)년 가을 평양시의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거리가 준공될 때 개원한 이 유치원에 바둑반이 태여난것은 다음해 4월이다.

김향숙원장과 평천구역의 교육일군들은 민족의 문화유산이고 지능계발에도 좋은 바둑을 통하여 재간둥이들을 더 많이 키울것을 토의하고 유치원에 바둑반을 내오기로 하였다.

그리고 바둑전문가자격을 가지고있는 홍정미교양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바둑술어들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들로 바꾸어 구사하면서 처음부터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 홍정미교양원은 우선 그들이 바둑의 기초를 공고히 다지도록 하는데 정열을 기울였다.

그 다음에는 경기들을 통하여 바둑의 높은 단계에 오르도록 이끌어갔다.

민속놀이이면서도 높은 급의 지능경기종목인 바둑의 오묘한 리치를 금방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깨닫는 과정은 결코 헐치 않았다.

부모들과 같은 심정으로 이겼을 때는 축하해주고 졌을 때도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신심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홍정미교양원이다.

마침내 바둑반은 오랜 경력과 전적을 자랑하던 시안의 여러 유치원들의 선배바둑반들을 긴장시키는 무서운 도전자로 되였다.

오늘에 와서 처음에는 바둑반에 자식을 보내는것을 주저하던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이 바둑을 배우면서 리해력과 집중력은 물론 자제력과 투지 등 좋은 품성들도 갖추게 되였다고 기쁨과 자랑을 금치 못하고있다.

처음 5명으로 운영을 시작한 평천구역 미래유치원 바둑반이 지금은 18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올해 봄철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에서 2등을 쟁취하였다.

사진 리철진 글 최호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둑의 묘리를 배워주고있다.

3중세계선수권보유자

조선의 체조선수 배길수는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금메달수상자로서 1980년대～1990년대에 세계안마왕으로 명성을 날린 체육인이다.

조선인민은 주체81(1992)년 4월에 진행된 제27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수권을 보유한데 이어 제25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안마운동에서 1등을 쟁취한 그의 결승경기장면을 아직도 잊지 않고있다.

이 경기대회에서 그는 한고리에서 두번 휘돌리며 1 080° 방향바꾸어돌리기와 고리 안잡고 3면이동과 같은 고급한 기술동작들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하여 국제체조련맹의 규정을 초월한 최고점수를 받았다.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28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안마운동에서 그가 또다시 선수권을 쟁취하자 세계의 체육계가 들끓었다.

그후 그는 제32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안마운동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에게는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받은 여러개의 우승컵과 30여개의 메달이 있다.

나라에서는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그를 인민체육인으로,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었다.

－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이자!

이것은 선수생활을 할 때나 은퇴후에도 언제나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삶의 좌우명이다.

그는 조선기계체조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면서 이 좌우명을 안고 나라의 체조기술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하여야 할 많고많은 일들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크게 관심을 돌리는 문제는 선수후비육성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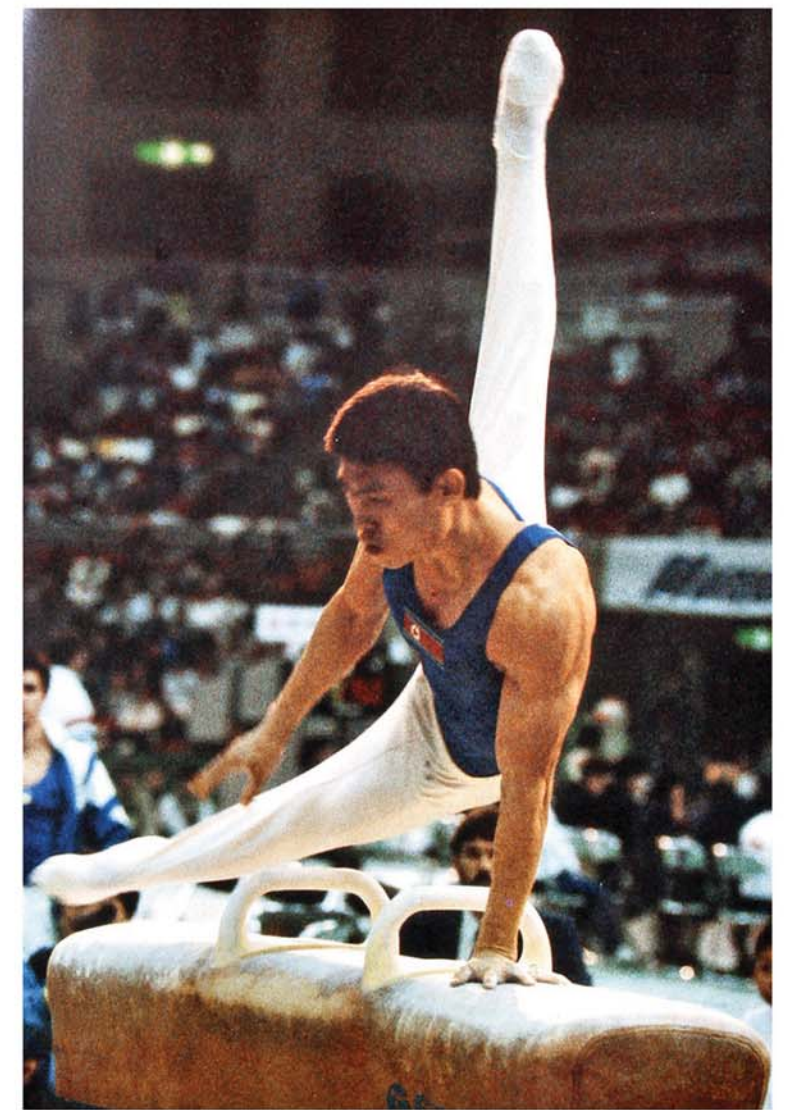
그는 감독들에게 선수후비선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늘 강조하고 적성체질의 선수후비들을 선발하도록 강한 원칙과 요구성을 내세우고있으며 어디서 전망성있는 선수후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한달음에 달려가군 한다.

2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리세광과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녀자조마운동에서 금메달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홍은정 등 체조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렇게 선발육성된 선수들이다.

오늘도 그는 나라의 체조기술발전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선경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배길수

제27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고급한 기술동작들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하여 국제체조련맹의 규정을 초월한 최고점수를 받고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조선기계체조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면서 선수후비육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가족들과 함께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건강에 좋은 룡강온탕

《아름다운 숲의 향기에 한껏 취하고 맑은 온천물에 몸을 푹 잠그니 10년은 젊어진것 같다.》

《한번 오면 가고싶지 않고 가면 또 오고 싶은 온탕원이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 온탕원은 남포시 온천군에 있는 룡강온탕원이다.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속에 있는 오랜 력사와 높은 치료효능을 가진 온천은 룡강온탕원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1481년에 편찬된 조선 중세기의 지리책인 《동국여지승람》에 룡강온천이 올라있는것만 보아도 오랜 력사와 깊은 유래를 가지고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룡강온천은 조선의 온천들가운데서 광물질이 제일 많고 브롬이온과 라돈이 들어있어 고혈압병과 관절염, 신경통과 신경염, 허리아픔, 각종 다친 상처 및 수술후유증, 부인성성기의 만성염증, 란소기능부전, 불임증, 만성위염, 만성대장염 그리고 습진과 피부가렴증을 비롯한 피부병 등의 치료에 좋은 매혹적인 온천이다.

유래가 깊고 사람들의 건강장수에 좋은 룡강온천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리용되고 있다.

48정보에 달하는 드넓은 부지를 가진 룡강온탕원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수림속의 온탕원으로 불리우고있다.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소리에 한껏 취해 수림속의 곳곳마다에 있는 호동들에 들어서면 건강장수에 좋은 온천물이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온탕원에는 라돈가스욕, 온몸치료욕, 내복치료욕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온천물을 리용하는 물놀이장도 꾸려져있다.

그리고 온천욕을 한다음 몸안에서 나오는 로폐물들의 제거를 촉진시켜주는 수기치료와 부항치료도 해주고있다.

조선서해를 가까이 하고있어 온탕원을 찾는 손님들은 조개전골, 조개밥, 대합조개구이 등 특산료리도 맛보고있다.

온탕원에는 여러가지 체육문화오락시설들도 갖추어져있어 누구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생의 젊음과 활기를 돋구어주는 룡강온탕원은 언제나 친절한 봉사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만족을 줄것이다.

사진 리학명 글 김정

온천물을 리용하는 물놀이장과 여러가지 체육오락시설들도 꾸려져있다.

력사유적이 많은 고장 - 개성

개성은 천년강국 고구려를 계승하여 918년부터 1392년까지 근 500년 존속한 조선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이다.

1 000여년의 도시력사를 가지고있는 개성에는 근 500년동안 존재하였던 고려의 경제와 문화, 과학발전의 면모를 보여주는 많은 력사유적들이 보존되여있다.

개성의 력사유적들중에서 대표적인것은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고려의 건국자인 왕건왕릉과 경효왕(고려 31대왕)의 릉을 비롯한 고려의 력대왕들의 무덤들이다.

왕건왕릉은 943년에 건립되였다.

주체83(1994)년에 릉을 크게 하고 석조물도 다시 만들어 세우는 개건공사가 진행되여 지금의 모습으로 되였다.

이 무덤은 무덤칸을 돌로 쌓고 벽화로 장식하는 고구려의 풍습과 외부를 각종 장식물로 화려하게 꾸미던 앞선시대의 묘제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것이다.

그 설계와 시공이 잘 되였을뿐아니라 당시의 문관과 무관들 그리고 동물들을 형상한 돌조각들은 하나하나가 우수한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왕건왕릉뒤릉선을 넘어서면 골짜기건너편에 만수산에서 시작된 긴 릉선이 동서방향으로 뻗어있는데 7개의 릉들이 산릉선우에 나란히 있는것을 7릉떼라고 한다.

명릉떼는 고려 29대 현효왕(1345년-1348년)의 무덤인 명릉과 그 주변에 있는 피장자가 밝혀지지 않은 2개의 무덤으로 되여있다.

성곽유적인 개성성과 개성남대문은 고려시기의 력사를 말해주는 유적들이다.

조선에서 고려시기는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알려져있다.

고려는 수도방위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둘레가 60리 되는 개성성을 쌓았다.

성의 형식은 고구려시기의 평양성의 형식을 계승한것이 특징적이다.

시내중심부의 네거리 가운데 서있는 개성남대문은 개성성 내성의 남문으로서 당시의 7개 성문중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루이다.

현재 돌축대와 그우의 문루로 이루어진 여기에는 조선의 5대명종의 하나인 연복사종(무게 약 14t) 이 걸려있다.

종은 1346년에 만들어져 연복사에 걸려있다가 1563년에 연복사가 불타면서 개성남대문에 옮겨지게 되였다.

개성남대문은 조선에 남아있는 옛 성문들중에서 가장 오랜것으로 알려져있다.

개성시의 송악동에 있는 만월대는 고려왕궁터이다.

왕건왕(918년-943년)릉

경효왕(1352년-1374년)릉

개성남대문

선죽교

명릉떼

표충비

고려성균관

총면적이 약 39만㎡나 되는 만월대의 왕궁유적은 그 구성과 짜임새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있다.

만월대에는 919년부터 1361년까지 고려국가의 왕궁이 자리잡고있었다.

992년에 세워진 고려성균관은 봉건통치리념인 유교교육과 함께 졸업후 봉건국가의 관리로서 알아야 할 시무책(정치문제)과 실무사업을 처리할수 있는 기능을 배워준 고려시기는 물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최고교육기관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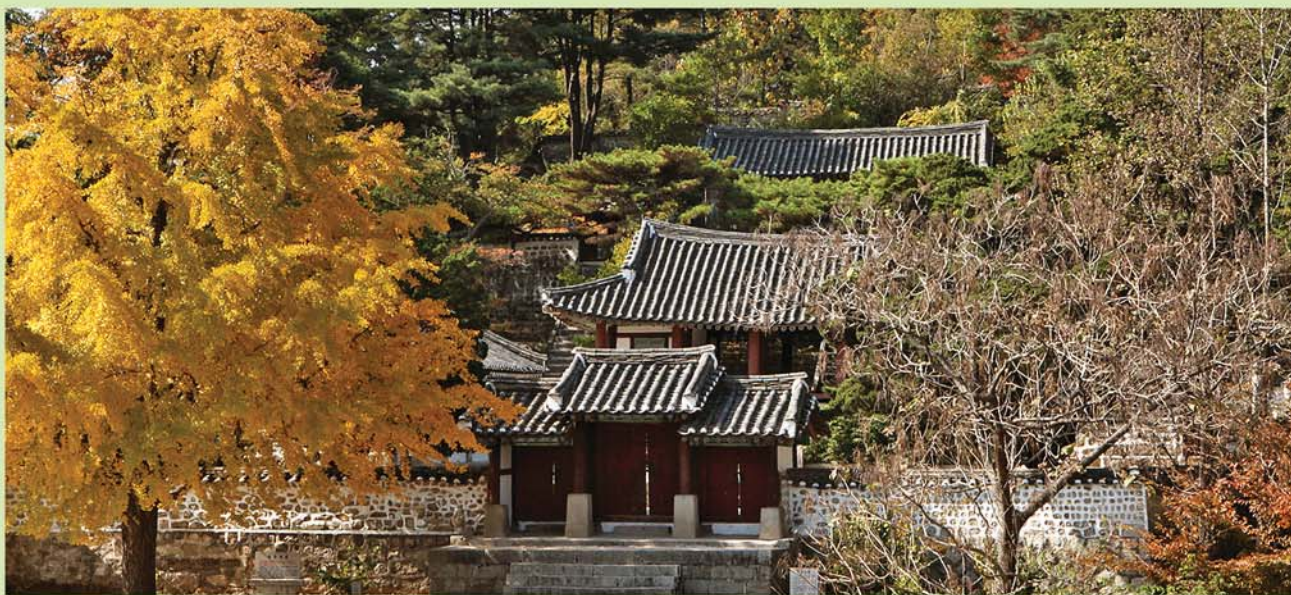
18채의 큰 건물로 이루어진 성균관은 공화국에 남아있는 옛 목조건물들가운데서 제일 크다.

성균관은 고려시기 국가적인 교육기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물로서 당시의 교육제도와 건축술을 잘 알게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일뿐아니라 중세교육분야에서 고려와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와의 력사적 계승관계를 밝히는데 없어서는 안될 실물자료로 되고있다.

1 000여년의 력사를 가진 고려성균관은 주체81(1992)년에 경공업기술인재들을 양성하는 종합대학으로 되였다.

숭양서원은 고려말기 재상이였던 정몽주(1337년-1392년)가 살던 집이였다.

1573년부터 정몽주를 제사하는 사당 겸

개성첨성대

숭양서원

현화사당간지주

청룡산석불립상

박연마애삼불암

만월대

관음사 대웅전의 외부와 내부

유교교육을 하는 서원으로 리용되였다.

개성첨성대는 고려시기의 천문대로서 지금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축대부분만이 남아있다.

이 축대는 변이 동, 서, 남, 북 방위와 일치하며 시공이 정밀하고 견고하게 되여있어 당시의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고있다.

개성시 선죽동에 선죽교와 표충비도 있다.

선죽교는 고려초기부터 내려온 오랜 다리이다.

고려말기의 봉건관리이며 유학자인 정몽주가 피살된 장소인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유적이다. 선죽교의 본래 이름은 선지교였다.

정몽주가 피살된 후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대가 돋아났다고 하여 다리이름을 선죽교로 부르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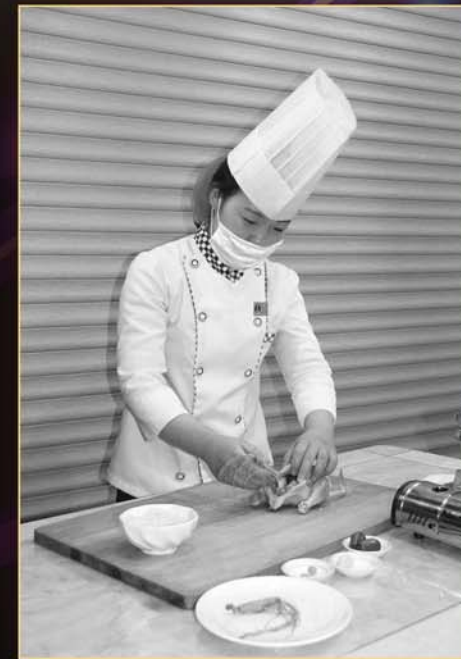
표충비는 고려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켜 선죽교에서 피살당한 정몽주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두개의 비이다.

왕건왕릉, 경효왕릉, 개성첨성대, 개성남대문, 개성성, 숭양서원, 표충비, 선죽교, 고려성균관, 만월대, 7릉떼, 명릉떼는 주체102(2013)년 6월 유네스코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장구한 력사발전의 매 단계의 시대상과 문화상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있는 개성의 력사유적들은 오늘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보호관리되고있다.

사진 정윤철 글 박훈

개성성

개성의 특산음식 삼 계 탕

조선에서 이름난 보약재인 개성고려인삼산지로 널리 알려진 개성에는 인삼계통의 보약과 건강식품들만이 아니라 음식들도 있다.

개성의 특산음식의 하나인 삼계탕은 개성고려인삼을 넣어 만든 보양음식으로서 조선인민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민족음식이다.

삼계탕은 알에서 까나서 4~5개월되는 올기전 닭의 배속에 단너삼, 대추, 찹쌀과 함께 인삼을 넣고 실로 꿰맨 다음 돌솥이나 뚝배기에 넣어 물을 두고 푹 고아서 만든 음식이다.

센불에 한소끔 끓인 다음 약한 불에서 한시간쯤 푹 고우면 인삼성분이 닭의 여러 성분들과 어울려 충분히 우러나오는데 그때 풍기는 향기가 감미로워 구미가 부쩍 동하게 한다.

삼계탕은 푹 고운것을 그대로 먹거나 꼭 짜서 즙액만을 먹기도 한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어도 된다.

삼계탕은 간을 두지 않은 맹물에 끓이는데 이로부터 《닭백숙탕》이라고도 불렀다.

예로부터 삼계탕은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는 경우와 빈혈 등의 치료에 효과가 컸으므로 보양음식으로 일러왔다.

특히 여름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의 하나로서 삼복때 즐겨먹는 음식이다.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삼계탕에 대한 유래에 의하면 원래 효성탕이였다는 말도 있다.

옛적에 앓는 어머니의 병구환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 총각의 효도가 하도 극성이여서 의원이 빨간 꽃이 피는 약초가 있으니 그 뿌리를 캐여다 닭의 배속에 넣고 푹 고아서 먹으면 어머니의 병이 낳을것이라고 하였다. 붉은 꽃이 피는 약초의 뿌리란 개성고려인삼이였다.

당시 개성고려인삼은 흔치 않아 총각은 모진 고생끝에 그것을 캐여가지고 와서 의원이 알려준대로 하여 어머니병을 고쳐드리였다.

그때부터 효성탕으로도 불리워온 삼계탕은 오늘 건강과 장수를 위한 보양음식으로서 인기를 끌고있다.

사진 리광명 글 김현

지워버릴수 없는 죄악 - 일본군성노예범죄

인류력사에 일본과 같이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와 배상은 커녕 철면피하게 부정해나서는 나라는 없다.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20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녀성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성노예로 만들고 침략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면서 갖은 만행을 다하다 못해 저들의 추악한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가 어떤 인간백정의 무리들인가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사진자료들을 한장한장 보면 볼수록 몸서리치고 이가 갈리게 하고있다.

불에 그슬린 시신들, 걸친것 하나 없는 상태로 흙구뎅이에 내동댕이쳐있는 끔찍한 광경…

일제야수들은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온갖 정신육체적고통을 들씌우다 못해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총살하고 불태우고 생매장하여 죽이였다.

그들속에는 10대의 소녀들도 있었고 꽃나이처녀들도 있었으며 갓 결혼한 녀성들도 있었다.

당시의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수십명에 달하는 일본군호색광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야 하는 악몽같은 노예생활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을 끊은 녀성들과 지옥같은 소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치다가 붙잡혀 배를 갈리우고 사지를 찢기운채 숨진 녀성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일제야수들의 귀축같은 만행으로 하여 성노예로 끌려간 수많은 조선녀성들이 살아돌아오지 못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일제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이다.

일제는 침략군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성노예제도를 내왔으며 여기에는 《조선총독부》와 외무성 등 정부의 각 기관과 군대, 경찰들까지 적극 가담하였다.

일제침략군의 상층으로부터 말단부대에 이르기까지 《위안소》관리운영체계를 세워놓았으며 녀성들의 련행과 수송에 필요한 자금도 부대들에 직접 보장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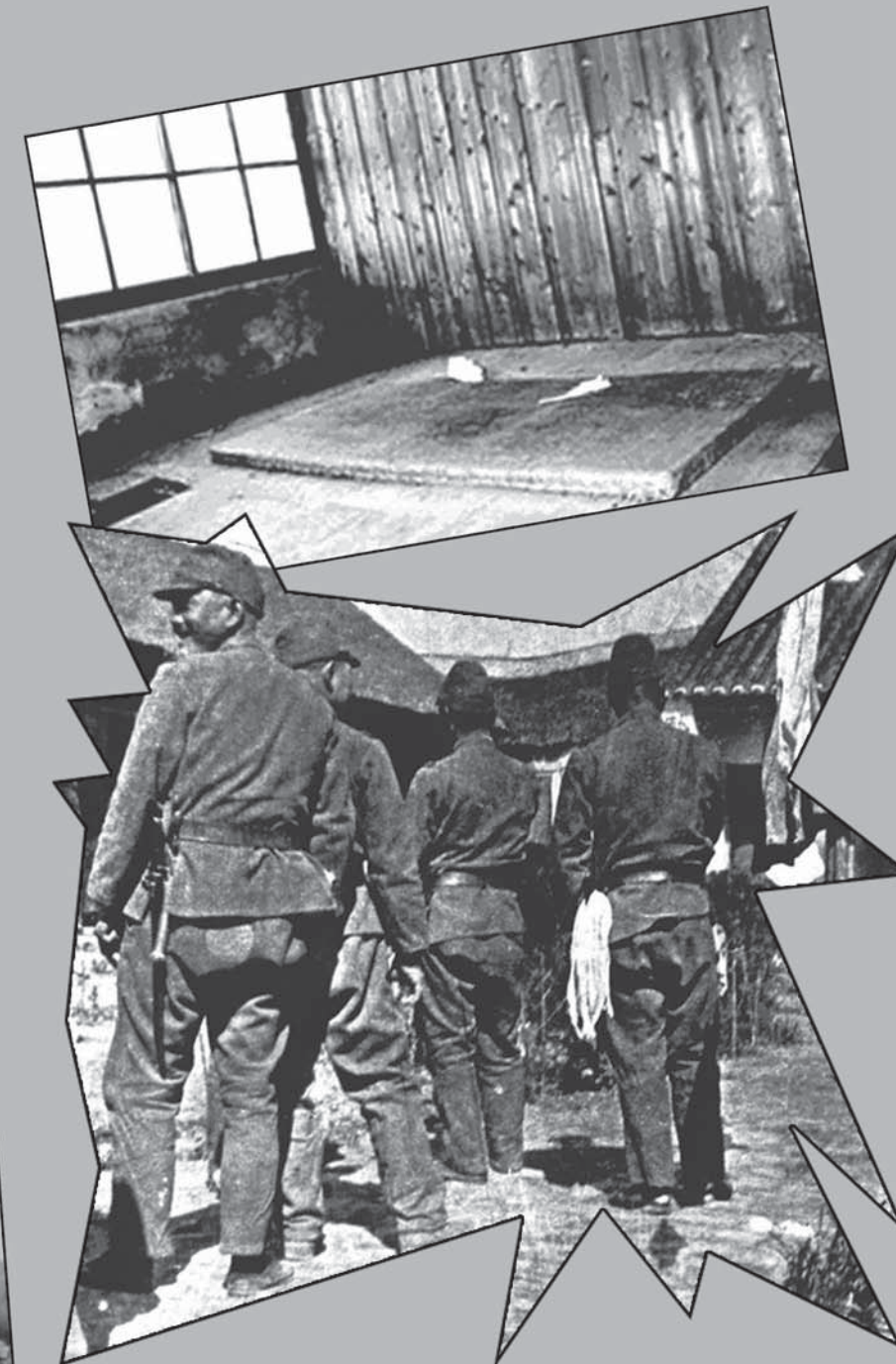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다》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용납못할 죄악을 부정하며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일제의 반인륜적인 특대형성노예범죄에는 절대로 시효가 없다.

일제의 성노예범죄의 희생물이 되여 인간의 존엄과 정조를 무참히 유린당하고 황량한 이국땅에 묻힌 조선녀성들의 원한에 찬 절규는 오늘도 구천에 사무쳐있다.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찬 력사를 지워버릴수 없다.

조선민족은 백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하여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글 김현

수욕을 채우기 위하여 몰려드는 일제야수들과 일본군 《위안소》의 방내부

새로 공개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고발하는 자료들

낸곳 : © 조선화보사 2018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한형주 13606-88112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동주성의 완월루 사진 공유일